MAY 1 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16 1982년 5월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sday, May 6, 1982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관 리 인：박 철 서
광 고 부 장：송 광 호

◆알젠틴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으로 격파된 HMS 쉐필드 구축함. 불이 붙자 구축함을 버리고 떠난 선원들중 30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 전함에 가장 큰 위험이 되고있는 알젠틴군의 프랑스제 수퍼·에탕타전폭기.

◆3일 침몰된 알젠틴 유일의 순양함 제너럴·벨그레이노. 승무원중 아직도 구조 안된 362명은 혹심한 추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확대일로 사상자 증가

영구축함1대 파괴 30명 사망 추정

(런던)알젠틴 순양함을 격침시켜 의기양양했던 영국은 36시간만에 구축함 1대와 전투기 1대를 잃고 해병 30명의 목숨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침통한 가운데 희생자의 이름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있다.

본격적 전쟁에 접어든영국·알젠틴간의 포클랜드 분쟁은 외교루트를 통한협상이 깨진지 수일만에 시급한 평화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쟁은 계속 확대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71년 구축된 영국의 최신에 구축함 HMS 쉐필드호는 3일 영국이 봉쇄한 포클랜드 근해 2백마일수역안에서 알젠틴의 지대공 미사일공격으로 침몰됐다.

지난3일 영국 핵잠수함 콩쿼러호가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된 벨그레이노호의 승무원중 680명이 구조돼 현재까지 36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방성은 시·해리어 점프제트기가 포클랜드섬 동부지역에서 포클랜드 수도 포트·스텐리 공항에 폭격작전비행중 격추당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4100톤급의 쉐필드호는 알젠틴공군의 프랑스제 에텡다 전투기가 발포한 2개의 미사일중 하나에 명중된것으로 영국국방성 관리들이 전했다.

영국야당 노동당의 한외교전문가는 쉐필드호 격침에 대해 "이것은 굉장히심각한 문제다. 이같은 비율로 전쟁이 커지면 영국이나 알잰틴의 인명손실은 1800명의 포클랜드 인구를 능가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영국측의 첫 인명피해소식을 들은 마가렛·대처수상은 비통에 잠겨 긴급각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민지 강탈행위"
소련, 영국 비난

(모스크바)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영국이 포클랜드군도위기에 무력을 행사한 것은 "식민지 강탈행위"라고 비난했다.

영국·알젠틴 전쟁이후 첫 공식 논평에서 소련은 또 미국이 영국을 지지하고나선 것은 남미에서 영향력을 위한 기회로 삼을려는 획책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결의안 502란
전쟁행위中斷·아르헨軍철수

미국의 영국지지 직후, 아르헨티나가 수락하겠다고 밝힌 유엔결의안 502는 지난 4월2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점령 다음날 영국이 제출하여 채택된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안이다.

결의안 502는 「전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섬에서 철수」할것과 양국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통치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않다.

또한 30일 선쟁발발 일보전에 유엔결의안을 수락함으로써 마지막 협상의 길을 다시 튼 아르헨티나도 결의안은 받아들이나 포클랜드섬의 통치권은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엔측 한소식통은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포클랜드섬에 국제중재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알』국민 반미감정고조
미국인들 철수 시작

(부에노스·아이레스) 알젠틴 국민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배명의 미국인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미국대사관 직원및 미국계 은행·회사직원과 그 가족들은 한시빨리 알젠틴을 떠나도록 지시받았다.

알젠틴이 포클랜드 군도를 점령한 4월26일 약 7천명의 미국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솔리대리티지지데모 가열
폴랜드전역에서 수천명 체포

(와르샤와)통행금지가철폐된지 48시간만에 수도 와르샤와를 비롯한 폴랜드 전역의 민중봉기가 다시심화, 폴랜드 군정당국은 또다시 통행금지를 선포했다.

가장 데모가 치열했던쯔체신에서는 솔리대리티 자유노조지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1,372명이 체포되고, 72명의 경찰이 부상했다. 민간인 부상자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4일에도 치열한 데모가 계속된 발틱해안도시(와르샤와 북서쪽 720킬로미터지점) 쯔체신에서 데모대들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방위선을 뚫고 한 호텔건물을 불태웠다

관영 PAP통신은 와르샤와, 그댄스크, 크레이코우, 로즈, 루블린, 바이도그쯔, 오런등 주요도시 대부분의 큰 도시들에서 일제히 치열한 데모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군부지도자 보이첵·야루젤스키장군은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AP통신은 쯔체신에서는 민간인의 자동차사용이 금지되고 전화선이 끊어지는 사태가 있었다.

이날 와르샤와에서는 2만5천명이 「자유! 자유!」를 외치며 시가행진했고 크레이코우에서는 6만시민이 경찰과 맞서며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작년 12월13일 전국에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가장 치열한 데모는 179 1년 폴랜드 자유헌법이 수립된기념일을 기해 솔리대리티가 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세계 유일의 전국노조 솔리대리티 자유노조의 지도자 렉·발렌싸는 연금상태에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폴랜드 시민들이 용감한 데모로 경찰과 맞서고있다.

◀바로잡음▶

본보 5월4일자 1면「김추기경 기자회견」기사중 왼쪽 끝줄 "미국은 우방국가이다. 대등"은 추기경사진 아래 우측첫줄 "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다음에 들어갈 것을, 조판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기 정정합니다.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본사는 금년부터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합니다. 한인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에서 인기 높은 야구에 대한 2세들의 관심을 북돋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티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7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장소가 예약되는대로 곧 발표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이 행사의 모토에 찬동하시는 교회학교, 한글학교등 많은 단체의 참가를 바랍니다.

주최：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브렌톤스포츠사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직원채용

새로개점할 저희 은행 블루아지점 627 Bloor St. W. 에서 일할 직원 약간명을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사진을 우송해 주십시요.

〈모집구분〉
슈퍼바이저급 1명
2. Teller 여자(약간명)
3. 남자직원(일반잡무) 1명
⊙Salary

캐나다외환은행
주소：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 364－289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치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준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 다운 타운 버라이어티(A1)：주매상 $11,000이상, 3 5% 이윤 2500 s.f. 리스 6+10년옵숀 $99,000+스탁(을 캐쉬 원함.

● 절호의 투자기회(A1)：100에이커 대지, Bramalea Rd 에 2,000 ft의 frontage, 한 길건너에 주택지역, 새 주택가까지 3마일, 근처에 새 병원계획, 30% 다운페이, Ask. $4,900/에이커

● 더옵：아담하고 깨끗한 설비, 주매상 $2, 500 이상, $29,900에 급매코저 함

● 상가지역의 3층 세미：Bloor St. 세 살림집과, 사무실, 지하실 전체 세 줬음, 올해 수입 $18,500, Ask $12,9000

● $9,900(급매가격임)：깨끗하고 설비좋은 버라이어티, 지하실 주매상 $2,000～2,500

● 요리집(LLBO있음)：멋있는 건물과 20대의 주차장, 전망좋은 요지에 위치, 좋은 수입, $395,000

● 아파트：7년된 52가구의 4층 벽돌 건물, 발코니.

● 버라이어티：일요일휴업, 플라자안에 위치 주매상 $ $3,800－4,200

● 대지：36에이커, 2 Hwy. Frontage $1,890,000 or best o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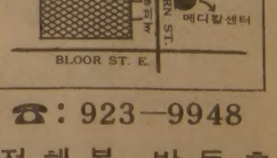
● 장난감 운동구상：같은 주인 6년운영, 쇼핑센터안, 짧은 시간 년수입 $60,000 Ask $9,900 only

● Tuck Shop：좋은 모게지, Asking $59,000 or best offer

★ 찾읍니다：좋은 매상의 가게나 사업체를 파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최고 시세가격을 지불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읍니다.

한국인의
꽃·화초
도(소)매상

Mother's Day Special
(어머니날 스페샬세일)
⊙Pot Mum's
⊙Orchid flower
⊙Mixed flower
⊙Carnation



☎：923－9948
정해붕, 박동호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아일랜더즈 결승전에

뱅쿠버 : 시카고 승자와 결전

(쾌백) NHL하키 최고의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뉴욕·아일랜더즈는 4일 쾌백을 또다시 4:2로 물리치고 스텐리컵 3연패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

뉴욕·아일랜더즈는 7승4선승제의 준결승에서 쾌백·노르딕을 4번 연달아 격파, 뱅쿠버대 시카고의 승리팀과 결승에서 만난다.

제3피리어드 종반까지3:2로 뒤를 쫓던 쾌백팀은 아일랜더즈의 밀집방어에 밀려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종반 2초전에 돈·서톤에게 골을 허용했다.

"아일랜더즈와 노르딕의 차이는 바로 경험이다" 고 말한 쾌백의 미셀·버그론 감독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많은것을 배웠다. 내년에 다시한번 스텐리컵에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결승진출 팀을 가릴 뱅쿠버·시카고대전에서는 뱅쿠버가 2:1로 현재 시리즈를 리드하고있다.

◆공중을 날으는 하키선수. 노르딕의 데이브·피세카 아일랜더 골리 빌리·스미스의 스틱에 걸려 넘어졌다. 아일랜드가 4:2 승리 스텐리컵 결승 티켓을 따냈다

"中共, 모든국가에 交易문호開放"

칼폴리포모나大 硏究報告書서 지적

사상과 이념문제로 오랫동안 자유진영국가들과 교역을 금지했던 중공은 최근 쌍방국가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어느 국가와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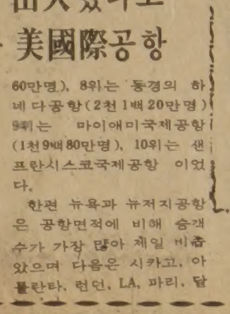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칼폴리포모나대학 태평양국가 산업연구소(소장·진형기)가 3월 발행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중공교역:공식적 견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연구보고서는 중공국제 무역연구소 치킹수 소장일행 7명이 81년9월 동교를 방문 자유진영국가들과 교역가능성을 조사 협의하고 귀국한후 그결과를 6개월만에 통보해와 출판됐다.

이 보고서는 중공은 쌍방국가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어느국가와도 교역을 하겠다는 문호개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석찬 (夕餐) 을 보며

이 영도



비록 소채일망정
간 맞춰 끓여 놓고

끼니 챙기며
더불어 앉은 가족

서로가
권하다 보면
적은 것도 남느니

갈수록 내 조국은
어두운 소식인데

안기는 어린 것
티 없는 눈빛이여!

석간을
밀쳐버리고
그를 안아 얼른다.

"캘가리의 붐은 식었는가?"

실업율6% 로 증가, 경제불황 영향

"캘가리로 캘가리로" 꿈을 안고 서부로 향하던 교포들의 발길도 요즘은 주춤하다. 토론토시내 각대학의 직업안내소 게시판에 보였던 캘거리의 여름학생 채용광고도 사라진지 오래다.

끝이 안보이던 캘가리붐은 과연 끝이 났는지? 토론토·스타의 마이클·핼론 기자는 "캘거리는 아직도 흥청대지만 실업률이 6%로 증가됐다"고 보도했다.

앨샌드사업계획취소등이 캘가리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캘가리가 직면한 현 문제점은 무엇인지 스타지 2일자에서 요약한다.

석유회사들의 중진들이 모인 식당「석유클럽」에는 검게 그슬린 얼굴의 석유산업선구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맥주와 음식을 들면서 트루도와 그일당을 욕하기 시작한다.

이 「석유클럽」주위에서는 건설공사가 한창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하늘에 치솟고 있어 붐타운의 면모는 손색이 없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가장 발전하는 주인 앨버타도 북미를 뒤덮는 경제불황에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지난 30일 발표된 앨샌드개발계획취소는 캘가리를 붐이전의 원점으로 돌려 놓을지도 모른다.

"앨샌드계획은 캘가리붐에 박차를 가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시청의 경제학자 버더·짚씨는 말했다.

지난 5년간 인구증가율 25.7%로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던 캘거리도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도시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듯하다. 캘거리붐의 연료가 됐던 오일및 개스산업이 점차 줄고있다"고 경제전문가 김슨씨는 말했다.

캘거리인구의 5명중 4명은 오일산업에 의존한다.

캐나다전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던 실업자들도 이제는 캘거리의 실업률이 4%에서 6%로 증가한것에 놀란다.

석유회사들의 간부들이 해고되기 시작했고 캐나다국영 페트로·캐나다등도 신규채용을 동결했다.

어쨌든 캘거리사람들은 주머니가 졸아들었다고 불편이 대단하다.

오헤어空港이 가장붐벼

작년 한해 總3천7백90만명이 出入했다고
2위는 하트필드, 10位中8개가 美國際공항

(워싱턴-UPI) 시카고의 오헤어국제공항은 교통량이 13%나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총3천7백90만명의 여행객이 출입,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공항으로 꼽혔다.

국제공항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위는 승객수 3천7백60만명을 기록한 아틀란타의 하트필드국제 공항이었으며 3위는 3천2백70만명이 출입한 LA국제공항이었다.

또한 제4위는 런던의 히스로우국제공항(2천7백50만명), 5위는 뉴욕 케네디공항(2천5백60만명), 6위는 달라스의 포스워스공항(2천3백50만명), 7위는 덴버의 스테이플턴공항(2천2백60만명), 8위는 동경의 하네다공항(2천1백20만명) 9위는 마이애미국제공항(1천9백80만명), 10위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이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공항은 공항면적에 비해 승객수가 가장 많아 제일 비좁았으며 다음은 시카고, 아틀란타, 런던, LA, 파리, 달라스-포스워스,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순으로 나타났다.

81년도에 미국공항을 통과한 승객수는 총5억7천5백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5%가 감소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9억3천4백만명이 공항을 출입, 4.9%가 증가했다.

불교의 은혜 ②

김 삼 우

>김삼우 씨

그러나 나는 마음의 종교가치를 논하기 위해서이 글을 쓰고 있는것이 아니다. 마음이 지니고있는 세속적 가치의 하나인 은혜를 말하기 위해 이글을 쓰고있다. 은혜라는말은 우리를 마음의 고향에로 돌아가게하는 참으로 친근감을 느끼게하는 말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뜻이 얼른 잘 드러나지 않는 말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은혜라는말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때문이다. 은혜라는 말뜻 가운데는 사랑, 친절, 고마움의 모든뜻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는 은혜를 베풀고 (施恩), 은혜를 알고(知恩), 그리고 은혜를 갚는(報恩)이 세가지로 은혜를 나누어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恩惠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이말이 안고있는 뜻을 좀더 분명하게 대할 수 있다. 因心과惠心은 어질고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은혜인 것이다.

꿈과같은 얘기지만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속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 충청도 속리산과 법주사로 유명한땅에보은(報恩)이라는 고을이 지금도 있다. 그리고 그많은 보은행위에 관한 민담과 전설은 영웅숭배와 교훈문학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인정과 의리의 깊은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초보은 (結草報恩)이라는 말이 조금도 생소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죽은후에도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아니 죽음마저도 은혜를어찌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알고 은혜를 갚는일은 비단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 뱀, 사슴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새들까지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가운데 살면서 자연을 강력하게 느끼지 않을수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만해도 땟목을타야 떤너갈수 있었던 서울근교의 한적한곳 뚝섬, 수도산(修道山)에 봉은사(奉恩寺)라는 절이있다. 글자그대로 은혜를 받드는 절이다. 신라때 효성이 지극한 처녀로 지은(知恩)이라는 분이 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여자분에 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분이 있어 가끔 우리를 숙연하게 하곤한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생각할때 불교를 생각하지않을수 없다. 은혜는 불교가 동양삼국(중국, 한국, 일본)에 세속교화를 위해 발전시킨 윤리관념이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국가관념이 강해 충효(忠孝)를 강조하고 인의(仁義)를 내 세우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지닌 자비와 은혜를 역설했던 것이다. 흔히 불교에서 네 가지의 은혜를 말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은혜, 부모님에대한 은혜, 가르침을준스승에 대한 은혜, 중생에대한 은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밖에 국토에 대한 은혜를 드는예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은혜는 평범하게 말해서 고마움의표시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은혜관은 불교의 인연관과 연기의이법에 연유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것은 고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인연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다는것이 연기(緣起)의 이법(理法)이다. 실지로 우리가 우리자신을 돌아볼때자기의 힘만으로 살수 있는 것일까. 부모없이 국토없이 음식과 옷을 마련해 주는 중생없이 길을 보여주는스승이나 선배없이 앞서간이들의 노력이나 경험에 의지함 없이 홀로 삶을 영위할수 있을것인가. 우리가우리의 육체적인일과 정신적인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전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만물과 적극적인 유기적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것을 알게된다. 이것이인연이고 연기다. 이러한 인연과 연기의 처지에서 볼때 우리는 실제로「자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무아관(無我觀)이다. 이러한 자기가 없는 무아의 마음에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생활은 서로 도와주는 생활, 보은행위로 채워지게 된다.

(계속)

어떤 아이들이 소외를 당하나

父母들이 알아둬야할 心理學的요인

◆어렸을때부터 친구와 사귀는것은 중요하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겐 부모와 교사가 외는, 사귈기회를 마련해 주도록한다.

비밀을 나누거나 함께 깔깔댈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재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정은 학교아동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즉 친구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같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또 행동면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번도 사교상의 거절을 당하지 않고 자랄수는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른 아이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자녀를 위로해본 경험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생일파티에서 제외당하고 게임에도 끼이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학급당 5~6명의 아이들은 항상 다른 학급아동들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아이들이 인기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소외를 당할까.

미네소타대학 심리학교수 하텁박사가 너서리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싸움을 잘하고, 남을 모욕하고 못살게 굴기를 잘했으며, 인기있는 아이들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도와주고 동정적이었으며, 남과 물건을 나누어쓰고 협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소외당하는 아이가 되지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모들은 ABC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말로 친구가 없으면 先生과 의논
그룹활동으로 社交術 늘릴수 있게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되는 연령은 세살부터.

세살부터 다섯살까지의 어린이들은 함께 놀면서 함께 쓰는법, 차례 기다리는법등을 배운다.

아이들의 싸움이 그들끼리 수습못할 정도가 되면 어른이 끼어드는데, 이때에도 무조건 명령을 내리지말고 그들이 생각할 여유를 준다.

즉 『왜 지미에게 기차를 갖고 놀도록 하고, 너는 트럭을 갖고 놀지 않느냐』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네가마크로부터 크레용을 빼앗으면 마크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느냐』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케하고, 『너 때문에 신디가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의 우정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더욱 중요해진다.

학교로 부터 돌아온 자녀가 『엄마,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할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어린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알아보도록.

종종 친구가 있는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곤 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선생과 의논하라. 학급활동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마련해주도록 부탁한다.

만약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단순히 무관심한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면 아동심리학자의 카운셀링을 받도록 한다.

▲자녀가 사교술을 늘릴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라.

학교에서도 그룹활동에 참가케하고,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물어본다.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자녀가 어울려 놀수있도록 해주고, 가족의 야외놀이에도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

야외에서는 선수끼리 경쟁을 하는 풋볼이나 테니스가 아닌 비경쟁적인 놀이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하나 알아둘것은 새로운 친구를 얻으므로써 인기컨테스트에서 이긴것같은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LA지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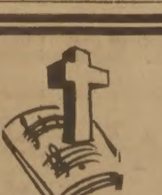
임마누엘연합교회

해산안통과공고

1982년 5월2일에 개최되었던 임마누엘연합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 헌법의 부록 제5(a)에 의거 교회해산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 정회원 178 명중 찬성 138, 반대 3, 기권 37표로 가결 하였읍니다

1982년 5월 5일

임마누엘 연합교회
임시공동의회 의장
전 택 균



예배안내

우리의 신앙 긍지와 선교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캐나다연합교회를 떠나기로 한 저희들은 새 뜻과 정성으로 새 예배처소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알려드리오니 교포 제위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982년 5월9일 오후2시
장소 : 3250 FINCH AVE. EAST
(FIRST ALLIANCE CHURCH)

1982년 5월 5일

예배 위원 대표 전택균

공 고

본한인회에서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장한어머니및 아버지 그리고 착한어린이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교민여러분들 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한어머니 : (1)열녀상—장 숙 자
(2)현모상—유 귀 순
(3)현모상—양 활 리
*장한아버지 : (1)현부상—김 희 준
(2)봉사상—백 봉 기
*착한어린이 : (1)우수상—윤세중(웨스턴한글학교)
우수상—이혜진(Y한글학교)
우수상—문희정(샛별한글학교)
(2)모범상—이기일(노스욕한글학교)
(3)봉사상—김루밴(욕크한글학교)
봉사상—박혜진(쇼햄한글학교)

일시 : 1982년 5월8일(토)오후2시
장소 : 한인회관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망명 蘇무용가 바리슈니코프

美서 눈부신활약

"살아있는 최고의 발레人"으로 浮上

살아있는 최고의 발레무용인이라는 칭호를 얻고있나 마이클·바리슈니코프가 아메리칸·발레·디어터(ABT)예술감독 취임 2년째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있다. 74년 소련 키로프발레단의 캐나다 순회공연도중 서방세계로 망명, 그동안 ABT와 뉴욕시티발레의 스타로 일했고 80년 가을 시즌부터 ABT의 예술감독에 취임, 무용수 안무가 무용교사 행정가로서 폭넓은 위치를 굳히고 있다. 그가 춤만추던 위치에서 발레단의 작품행정까지 해내야하는 직책을 맡은것은 오히려 손실이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했었으나 취임후 즉각 작품선정, 단체조직에 극적인 전환을 시도,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다.

ABT 예술監督 2년… 新作21편
단원들"그가 우리自由탄압"불평도
이젠 大衆的 스타로
환상적 완벽한 作品

그는 뛰어난 스타급무용수를 가진 짜임새있는 발레단을 목표로해서 그 자신의 역량을 심어줄수 있도록 강행군을 하고있다.

ABT는 35년의 역사와 90명의 단원을 갖고있는 미국최대의 발레단이다.

바리슈니코프취임이후 ABT는 『무용수들은 환상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연습이 돼있어 정확하고 박력있는 시각효과로 무대에 전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의 무용평론가 안나·키셀코프는 감탄했다.

그러나 바리슈니코프는 『무용수의 훈련은 단 5년이나 10년으로 이뤄지는것은 아니다. 키로프발레의 수준은 2백50년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취임첫해 바리슈니코프는 군무진에게 「백조의 호수」「잠자는 숲속의미녀」같은 클래식 작품을 완벽하게 훈련시켰다.

2년째부터 그는 ABT의 작품범위를 넓혀 ABT의 단골창작 레퍼터리를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ABT의 창작발레는 『무용수들이 훨씬 즐겁게 편안하게 춘다』고 그는 분석했다. 바로 미국인 기질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무용수가 추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러시아인이 공연하는 세익스피어무대같다』는 것이다.

바리슈니코프는 이런 미국적인 작품속의 무용수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을뿐 아니라 클래식 레퍼터리도 새롭게 안무한다. 『비평가들이란 시야가 좁다. 내가 좀 변화를 시키는것에 화를 낸다. 그러나 클래식이란 언제나 변화해가는 것이다.』

바리슈니코프는 이번 시즌 시카고공연도중 무릎을 다쳤다. 그는 『부상을 해서 움직일 수 없을때가 내휴가』라는 말을 해왔지만 휴가일수 없다. 부상으로 무대에 스스로 오를수없는 대신 예술감독으로서 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바리슈니코프는 누구에게나 다정하나 발레단의 단장으로서 위엄을 지키고 있다.

『자유를 찾아 망명한 사람이 단원들의 자유를 압박한다』는것이 단원들의 불평이다.

그는 무용이 단순한 움직임만은 아니라는점을 주지시키려고 애를 쓴다. 무용은 감정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또 무용은 무대예술로서 발놀림 하나하나가 무대의 마술에 기여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극적인 표현을 「아름다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태어나 레닌그라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68년 20세때 키로프발레단에 입단, 스타가 됐다.

망명으로 인한 그의 가장 큰 괴로움은 정든것과의 이별였다. 그는 러시아에 두고온 강아지애기를 가끔한다. 친구들은 그가 가족 친구등은 물론 강아지까지 모든것과의 헤어짐에 대한 유난히 아픔을 느낀다고 애기한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지금까지 안전을 모르는 이별의 연속이었다.

망명직후 2년간 그는 21개의 신작발레를 발표했고, ABT, 영국로열발레에서 스타로 뛰었으며 트와일라·텝의 요란한 작품과 TV특별프로에 출연했고, 「호도까지 인형」 안무출연필름을 만들었고, 영화 「전환점」에 무용수로 출연해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다.

지난 4월21일 미국전역에는 「헐리웃의 바리슈니코프」가 방영돼 그는 또한번 대중적인 스타가 됐다. 그는 어딜가도 사인공세를 받는다.

그는 4년째 여배우 제시카·랜지와 산다. 그들사이에는 1살짜리 딸 알렉산드리아가 있다. 최근 뉴욕에 집을 한채 장만했지만 서로 바빠 그집에 정착할 꿈도 못꾸고 있다.

그가 만드는 무용무대의 성공비결을 무엇일까?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기위해 완벽하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映画 디바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처럼…

▲맛과 멋이 가득해 새벽공기처럼 시원한 「디바」에서 프레데릭과 뚜이가 희롱하고 있다.

멋과 맛이 흐르고 재치와 유머가 반짝이며 우아함과 감상마저 일렁이게 한다. 「DIVA」는 알프레도·카탈리니의 오페라 「La Wally」의 아리아를 전편에 깔면서 과다하지않은 예술감각으로 맵씨있게 처리한 재미만점의 작품이다. 불란서영화의 독특한 냄새를 다시 한번 맡으면서 청량제 한컵을 가슴 깊이 들여마시고 나오는 기분.

젊고 수줍은 우체부 쥘(프레데릭·앙드레)은 클래식 광. 그의 흠모의 대상은 흑인소프라노 빌헬메니아·페르난데스. 결코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지 않는 그녀의 청아한 아리아를 몰래 녹음한 쥘은 프랑스갱의 비위를 녹음한 테이프가 자신의 우편랑에 담기면서 영화는 끊임 없이 쫓고·쫓기는 드릴이 계속된다.

이 허기진 석고상모습을 한 쥘이 쫓길때 베트남출신 좀도둑 뚜이·안·루와 그녀의 정신적 지주이자 선에 몰두하는 리처드·보링거가 나타나 쫓는 고양이와 이를 우롱하는 영리한 쥐와의 숨바꼭질에 관객은 매료당한다.

불란서는 예술의 나라라는듯 대화간간이 섞여드는 약간 어설픈 철학적 내용은 차라리 귀염성이 있고 화가가 붓을 놀기전 사물을 배열하듯 조작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촬영이 아름답다. 등대와 먼지 한점 없는 시트로엥 그리고 이슬비가 오는 파리의 새벽속에 앉은 쥘과 빌헬메니아의 모습은 박하맛이고 서푼짜리로 보이던 보링거가 대담하고 치밀하게 암흑가의 패거리를 우롱하는 장면은 통쾌하기 그지 없다.

이 작품이 이토록 산뜻한것은 섹스가 과잉노출될듯 위험해보이면서도 자제롭게 처리됐으며. 폭력이 자행되면서도 순간순간 제지한 솜씨탓도 있다. 그리고 출연진들의 평범하도록 자연스러운 연기하며…. 거기에 산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La Wally」의 곡조가 화면을 내내 싸고 돌아 영화의 품위를 높인다. 클래식이 있는 드릴러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 장-자크·베네의 재주가 엿보인다. 「디바」는 프리마·돈나의 뜻. 동급 R. 웨스트LA 토알극장. 〈津〉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교민증가 1만명 서명운동

경애하는 5만 교포여러분! 지금 총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1만명 서명운동은 일석수조의 이익을 가져오는 범교포적인 운동입니다. 한국은 많은이민을내어보내니 좋고, 캐나다는 선택적으로 우수한 이민을 받게되니 좋고, 교포사회는 교포의 증가로 모든 단체와 기업이 활기를 띠게되니 환영할 일입니다.

비록 캐나다는 실업율이 높다 할지라도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매년 13만명 이상의 이민을 해외에서 받아드립니다. 이와같은 높은 숫자는 우리 앞에 열린 문입니다. 만명서명운동은 이 열린문을 한-카 양국의 이익과 교포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펴나가는 애족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마련된 지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하여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캐나다총연합회 드림 —

보낼곳 : 각 지역 한인회장
또는 Dr. KI SONG OH
P. O. Box 584, Cote St. Luc, Montreal, P. Q. H4N 2Z2

성 명	주 소	서 명

英機、포클랜드 爆擊

空港에 集中 : 아르헨機 離着陸봉쇄

艦隊소속 「해리어」戰鬪機편대 出動

美"英지원"、아르헨"포群島 포기안해"

【런던1日AP聯合=聯合】영국기동함대소속수직 이착륙 해리어제트機편대가 1일상오 포클랜드 군도의수도인 포트스탠리공항을 폭격했다고 영국국방성이 이날 발표했다.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포트스탠리공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행해진것이라고 밝혔다.

이번공격은 영국이 포클랜드주변 2백해리 수역해공봉쇄를 지난30일 하오8시 (한국시간) 단행한후 최초의 공격이다.

영국은 앞서 아르헨티나가 포트스탠리공항을 사용하려들면 이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바있다.

이 공격이 진행되고 있을때 공항에 아르헨티나 공군기가 있었는지 여부등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기동함대사령관 존·우드워드제독 자신이 길이 1천2백90m의 포트스탠리공항활주로를 파괴하기위해 해리어機를 출동시키리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었다.

성명은 지난28일 경고에서 48시간안에 포트스탠리공항은 폐쇄될것이며 공항내 착륙중인 여하한 항공기도 공격대상이 될것임을 경고해두었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이공항을통해 도합 1만3천명의병력을 포클랜드에 투입했으며 이들의 병참·보급에 미미 불편을 느끼고있다.

해리어機는 폭탄 3천6백29kg과 로키트를적재하며 구경 30밀리 기관포는 秒당 20발을 속사한다.

영국해병특공대가 상륙작전을펴자면 포트스탠리공항활주로파괴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

정통한 소식통은 아르헨티나 공군소속 미라지Ⅲ요격기 여러대와 쌍발 A58 푸크라 對게릴라 작전용 항공기와병력수송 헬리콥터 편대가이공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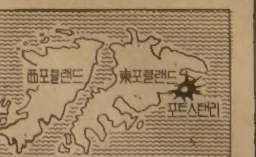
해리어機는 수직 이착륙전폭기 이므로 포클랜드 상륙작전을 하더라도 공항활주로를 사용할필요가 없다.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발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영제 타이거캐트 對空미사일을 포트스탠리공항주변에 배치한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작전때 해리어機가 지상공격을 받았는지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워싱턴30日AP·UPI=聯合】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영유권분쟁 발생이후 근 한달동안 중립적·중재자적 입장을견지해왔던 미국은 30일 아르헨티나를 침략자라고 규정짓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무기수출동결▲군사관계물자 판매중지 그리고 ▲신규은행차관및 상업차관의 보증중지등을 내용으로하는 對아르헨티나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白堊館에서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 포클랜드를 강점한 아르헨티나의 무력침공이 허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지적, 미국은 앞으로 영국을지지, 『물질적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미국이 아르헨티나사태의 평화적해결을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이노력이 아르헨티나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전제, 미국은 이번위기가 아르헨티나의 선제무력사용에의해 야기된 사실을중시하고 아르헨티나를 제재하는 한편 영국을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白UPI·AFP=聯合】아르헨티나의 집권군사평의회는 1일 포클랜드군도 사태를 전면 재평가하는 내용의 16개항 코뮈니케를 발표, 미국의 대 아르헨 군·경제조치를 격렬히 비난하고 포클랜드 군도를 수호하기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미국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사평의회는 이코뮈니케에서 미국측의 조처는『부당하고 무절제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이같은 조처는 미국함대의 작전개시와 때맞춘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8개項 문젯점提示

內務委、宜寧사고收拾에 반영토록

국회內務委는 30일밤 宜寧경찰관亂動사건에 관한 對정부질의를 통해 드러난 8개항목의 문제점을 정리, 이를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사건수습및 대책수립에 반영토록했다.

이날 內務委는 문제점으로 ▲사건의 범행동기, 원인의 철저한 분석검토 ▲총기관리제도의 개선책 ▲피해자 賠償대책 ▲경찰신뢰회복과 기강확립대책▲경찰자질향상과 人事제도개선책 ▲예비군및 민방위의 효율적운용대책 ▲경찰의 출동태세정비대책 ▲일선 支·派出所의 人力증강 대책등 8개항을 간추려 내무부에 제시하고 내무부의처리결과를 봐야 3黨간사들의 협의로 다시내무위를열고 정부로부터보고를받기로했다.

"心機一轉기회로"

悪夢씻고 밝은마을 되게

全대통령、宜寧사고현장시찰

【宜寧】全斗煥 대통령은공휴일인 1일상오 경남宜寧郡宮柳面石井마을 경찰관 총기사건현장과 부상자들이 입원중인 병원을 둘러보고 사고유가족과 부상자 주민들을慰勞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11시10분 전용헬기편으로 현지에 도착,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된 面사무소에서 崔鎭錫경남지사로부터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당해 피해를입은 희생자、유가족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의말을 할수없다』고 말하고 『이를 교훈삼아 경찰 면직원 그리고 정부의 모든공직자들이 대오각성하여 새로운결의를하는 심기일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겠으며、그렇게 하는것만이 고인들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불행한 사고가 났지만 현지주민을 비롯 전국민과 당국이 진심으로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발벗고나서 빠른시일내에 사고를 수습、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뒷받침이 있어 불행중다행』이라고 말하고 『희생자의 유가족및 주민들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세워 주민들이 악몽을 씻고 밝고 희망찬 마음이 되도록 지원해야할것』이라고 수행한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관광버스 굴러 승객14명 死亡

어제下午 慶州 토함山서 19명중경상

【慶州】1일하오5시10분께 慶州市 佛國寺뒤편 吐含山중턱길에서 승객31명을 태우고 石窟庵쪽으로 달리던 광주고속소속 전남5바1018호버스(운전사최석주·45)가 50m언덕아래로 굴러 안내양 최영희양(20) 등 승객14명이 숨졌다.

이날 승객들은 4월초파일을 맞아 石窟庵으로 가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부주의로 버스가 계곡에추락하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이날사고버스는 불국사에서 불교신도 관광객32명을태우고 석굴암으로 올라가던중 때마침 비가내려 노면이미끄러운데다 맞은편에서오던 택시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순간 낭떠러지로 그대로 추락했다.

부상자들은 경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사고버스에 타고있던 승객32명은 광주 연초제조창직원들로 관광버스를 대절, 초파일을 맞아 경주에 관광왔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사고버스는 광주연초제조창직원 15명의 부부관광단 2박3일 관광예정으로전세를 내어 부산태종대의 양산통도사를 거쳐 경주에 도착했다. 【新】

韓日經協 계속難航 5월타결 어려울듯

韓日양국은 經協에 대한 일본측의 공식代案을 갖고 來韓한 야나기야·겐스께(柳谷謙介)일본외무성 심의관을 맞아 經協타결방안을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지못한채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갖자는데만 합의, 經協 교섭은 長期化될 전망이다.

사꾸라우찌(櫻內)일본외상의 親書를 휴대하고 來韓, 두차례에 걸쳐 盧信永외무장관과 요담을 가진뒤 1일 하오1시30분 JAL편으로 離韓한 야나기야 심의관은 출발에앞서 『5월중 양국외상회담은 비관도, 낙관도 할수없다』고 말했으나 양측의 異見이 좁혀지지 않아 經協타결을 위한 5월외상회담은사실상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야나기야 심의관은 離韓에앞서 마에다(前田利一) 駐韓대사와함께 30일밤 盧외무장관을 서울漢南洞공관으로 방문, 1시간동안 2차요담을갖고 經協문제를 협의했으나 양측의 異見을 좁히지못했다.

이날밤의 2차요담에서 일본측은 의료 교육 상하수도 다목적댐등 6개공익사업에대해선 정부개발협력자금차관을 공여하고 일반철도 釜山지하철건설 京仁LNG설비등 수익성사업에대해선 일본수출입은행 차관과 일본市中銀行융자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처誕生2,526돌 提燈행렬등 行事

1일은 부처님탄신 2526년이되는 음력 4월초파일。이날을맞아 曹溪宗·太古宗등 불교18개종단은 법종단 연합행사를가졌고 전국 7천여사찰과 암자별로 부처님탄신봉축법요식, 봉축예술제, 강연회, 제등행렬등 다채로운 행사를펼쳤다.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曹溪宗은 이날상오10시 서울曹溪寺 대웅전에서 黃龍經총무원장, 黃壽永동국대총장, 朴完一전국신도회장, 전종단간부스님, 신도등 1만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종정법어순으로 법요식을 가졌다. <사진>

화창한 連休맞아 寺刹등 行樂人波

화창한 날씨에 석가탄일 연휴를 맞아 전국의 사찰과 관광지는 신도와 행락인파로메워졌다.

1일 서울의 각역과 버스터미널은 야외로 빠져나가는 인파로 뒤덮였는데 이미 30일 5개 임시열차를 비롯 65개 열차편으로 3만여명의 여객이 빠져나간 서울역에는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3만여명이 교외로 떠났으며 강남 고속터미널도 상오중으로 2만여명이 나갔다.

市場시설 近代化에 1백억원 財政지원

상공부는 시장및 수퍼체인등 유통시설 근대화사업 지원을위해 마련한 1백억원의 재정자금 세부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유통근대화자금은 종합구판장에 29억원, 加工配送센터에 21억원, 시범 중소유통사업자에 25억원, 시장에 13억원, 수퍼체인본부에 5억원, 중소상인 연쇄점본부에 5억원, 유통연수기관에 2억원씩을 배정했다.

상공부가 새로 마련한 올해 유통업 자금지원계획을보면 ▲종합구판장육성을위해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川지역 41개소에 시설자금 20억원과 운전자금 9억원을 지원하고 ▲가공배송센터 신설을위해 서울 釜山 大邱 光州등 5개소에 시설자금 15억원과 운전자금 6억원을▲시범 중소유통사업을위해서는 전국의 2개 사업자에게 시설자금17억원 운전자금 8억원을▲시장육성엔 전국10개소에 시설자금 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퍼체인본부 육성을위해 지방에 있는 15개업체에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중소상인 연쇄점본부는 전국 15개소에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3억원▲유통연수기관엔 전국3개소에 시설자금 1억원 운전자금 1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유통자금지원한도는 1개소당 종합구판장은 7천만원, 가공배송센터는 4억2천만원, 시범중소유통사업자는 15억원, 시장 2억원, 수퍼체인본부와 연쇄점본부가 각각 5천만원, 유통연수기관 1억원이하로 제한되어있다.

社会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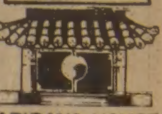
英國 支援선언…

地平線

상상조차 할수없는 엄청난 얘기들이 미국엔많다. 몇해전에 떠들썩했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자리를 물러났는데 이번엔 백악관의 일상생활을 미국 3大방송에서 도청해왔다는 놀라운 얘기가 들려온다.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다. 카터前대통령재임 당시 백악관 대변인을 맡았던 조디·파월씨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으니 믿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3大방송인 ABC、NBC、CBS의 통신기술자들이 대통령과 백악관참모들의 대화내용및 비밀업무사항을 늘 듣고 있었다니 도청해온 그방송들의 윤리도 문제이거니와 그토록 발달한 도청기술이 새삼 놀랍다。그뿐아니다。방송국의 도청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체 해온 백악관사람들의 속은 큰건지 작은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카터 前대통령때 전용헬리콥터나 승용차에서 주고 받은 전화통화내용까지 모두 들었다는 만큼 도청하는쪽이나 도청당한 쪽 중 어느편의 수가 더 높았는지 이해가 안간다。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알수없는 나라인것만같다。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장처벌할수있었을텐데 일부러 방치한채 백악관측이 정치적으로 역이용했는지도 모르고、또 한수 더 떠서 방송국측에서 백악관정보를 능란하게 가려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아뭏든 미국다운 얘기다。하기야 高性能電子機器가 발달될대로 발달된 세상이다。方向·거리만 맞춰 TV스포츠중계에 쓰이는것과 같은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쓰면 길건너편에서 사람이 숨쉬는 소리마저 들을수 있다한다。창문이 닫혀있는 경우 그 창문에 레이저광선을 투사하면 방안의 대화를 테이프에 담게도 되는 모양이다。워터게이트 사건만해도 10년전 일이라 엄섬한때라고 보여진다。오늘의 미국에선 콩깍지 만한 마이크로폰、담배갑만한 증폭기를 일반가게에서 쉽게 구입할수가 있다。사생활이 이러한 도청기로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은듯하다。또한 도청기를 찾아내는 기계도 나돌고 있다。▼이웃 일본에도 소형도청기가 판을치는 참이다。▼東方禮儀之國인 한국에선 도청시비는 아직없다。도청가하면 크렘린과 백악관사이의 첩보전에나 人工衛星에 이용되는 걸로 알기쉽다。하나 미국선 정보홍수속에 살고있는 公人의 생활은 거의 발가벗기고있는 실정이다。公人은 말뿐아니라 行動까지 理想主義者이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마셜·맥루언은 말한일이 있다。盜聽같은 지저분한짓이야 없어야 하겠지만 세상이 눈부시게 발달하고있는것만은 우리도 알아둘 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지난1월에 **$2,000,000** 을 **돌파** 한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3,000,000 의고지를향하여 건전한발전을거듭 하고 있읍니다.
이에 박차를가하여 **정기예금** (Term Deposit)의 **이자율**을 **파격적** 으로
인상실시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기예금 Term Deposit	한인신용조합	일반은행	
		$ 5천미만	$ 5천이상
30일	14.5 %	13 %	13.5 %
90일	15.25%	13.75%	14.5 %
180일	15.5%	13.75%	14.75%
1년	15.75%	14.75%	15.25%

1. 한인신용조합은 $5,000미만도 차별없이 우대합니다.
2. $100,000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안내 : 정기예금, 신용적금, 어린이적금, 보통예금 (Daily Interest), 일반대출, 신용대출, 적금대출
전화문의 : 533－9387, 9388
1982. 5. 1.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 533-9387, 9388

美의 친구는 NATO였다

「포클랜드苦鬪」…美는 왜 英편에 돌아섰나

유럽의 蘇위협 고려 "英國이 더 盟邦"판단

30일하오8시(한국시간) 포클랜드군에 대한 영국의 海·空전면봉쇄령이 발표된 시각,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해리·스러드먼 미국대사는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방안의 공기는 대단히 무겁고 두사람의 얼굴은 석고처럼 굳어 있었다.

이들의 만남이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워싱턴의 레이건 대통령은 긴급국가안보회의를 백악관에 소집했다.

「미국의 협상중재는 여기서 끝난다. 아르헨티나는 방금 미국이 제시한 최후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아르헨티나는 먼저 무력을 써서 포클랜드를 점령했으므로 침략자다.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자가 성공을거두도록 방치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오랜 맹방인 영국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영국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군수물자를 제공하겠다」

레이건은 이날 회의를이렇게 매듭지었다. 레이건의 이런 발표로 스러드먼·대사와 갈티에리 대통령의 대담내용은 자명해진다.

포클랜드사태 발생전부터 영국으로부터 군사대결 회피의 중재역을 부탁받았던 미국 협상주선에 최선을 다한끝에 아르헨의 고집을 꺾지못해 영국편을 들게되었다는점을 알리려고 고심한 흔적이 많다.

따라서 미국의 자세전환은 아르헨티나로하여금 협상에 응하도록 측면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에 발을 맞추듯 영국의 핌외상은 즉시 성명을 발표『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영국편을 서게됨으로써 포클랜드사태가 중대하고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1일이나 2일 워싱턴과뉴욕을 방문해 헤이그미국무장관과 페레스·데·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를 봉쇄한 영국의 함대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것만 같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포클랜드사태가 터진후 워싱턴과 뉴욕에서 고독한 협상을 떠맡아 왔던 아르헨의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외상은 유엔본부로 카만디·와·카만다 安保理의장과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회담한 후 지친 모습으로 기자들을만났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로부터 아르헨티나軍 철수를 촉구한 유엔안보리결의 502호를 받아들일 태세가 돼있다는 때 풀린 발표를 극적으로 하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주권문제는 협상대상이 될수 없다는점을 잊지않고 강조했다.

멘데스외상의 성명이 내심 믿고 의지했던 미국이 영국편을 들었다고 선언한 직후에 나온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미국은 적어도 영국함대의 포문은 막아줄수 있을것으로 아르헨티나는 믿고있었다.

모두다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두친구 모두 얻으려 시종협상중재에 나섰던 미국은 둘 다를 잃어버릴 위험앞에서 그중 한쪽 구 영국편을 들고 만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력점이 OAS(미주기구)보다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두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련의 해우위를 유럽에서 집단저지코자하는 레이건이 NATO맹방영국을 지지하고 나설것이라는것은 사실 짐작을 못한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OAS의 벌어진틈사이로 소련세력이 손며들수 있다는 점이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소련이 아르헨티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한 확증을 갖고있다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崔相鎬기자】

◇『이친구、마거리트 좀 진정하라구。아르헨티나도 내 친구잖아』『겨우 한뼘정도 땅을 가져갔을뿐이야』 그러나 레이건의 진짜친구는 갈티에리가 아니고 鐵의여인 마거리트·대처였다。

OAS對美不信 불씨 유엔仲裁外交는 계속

그러나 사태의 중대성은 이것이 결코 일의 매듭이 될수없다는데 있다.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미국이 찬성,통과시킨 安保理결의를 준수할 태세가 돼있다고했으니 영국은 당장 무력을 행사할 명분은 없다.

영국은 헤이그 중재외교를 통해서 포클랜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이협상대상이 될수는있으나 현지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군대를 즉시 철수해야 협상이 이루어질것이란는 주장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이 양국의 체면에 무리가없게시리 조정되지 않고 충돌한다면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력대결의 위험을 또 불러올 수도있다.

OAS의 장래도 주목거리다.

이번 레이건의조치가 초래한 OAS국가들의 對美불신은 어떻게 수습이되는 것이며 이렇게 흔들린 OAS의 결속은 엘살바도르등의 중남미 좌우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 것인가.

아침에

普通人의 社會를…

「家庭의 달」…人情과 情緖의 꽃 피우자

成耆兆 〈詩人〉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신록으로 접어드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라일락의 향기가 코를 찌를듯이 피더니 늦게 핀 철쭉이 고운 빛깔로 만발하고 있읍니다.

남산기슭을 걷다가 신록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읍니다. 어제는 부처님이 오신날이라고 거리에는 많은 燈이 바람에 흔들리며 鐘路에, 安國洞에 걸려있는것을 보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했읍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시인도 있었읍니다만 금년의 4월은 어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생각되어서 말입니다.

지하철공사장에서 많은사람들이 무수히 죽음을당하더니, 이제는 宜寧에서 한 경찰관이 55명의 인명을 빼앗고스스로 自爆한 끔찍한 일도 생겨 났읍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이런 사건은 세계에서 그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일입니다. 內緣의 처와 사소한 말다툼끝에 무기고에서 총기를 들고 나가 마구잡이로 쏘아댔으니 어찌 이일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겠읍니까. 더우기 술을 마시고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주벽이 심한사람이 어떤 理由로해서 오늘날까지 경찰관으로 在職하고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술에 만취한 자를 혼자 근무케하고 총기관리도 이렇게 허술하게 할수 있으며 경찰관이나 예비군들의 출동태세나 執務體系가 신속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걷는 소걸음이었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생각해보면서 신문에 난 사진을 보았읍니다.

트럭에 가득실려있는 관을 보고 또 어린 喪主가 慘變을당해 천애의 고아가 된 父母가 술잔을 바치는 것을 보고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렸읍니다. 사건현장에서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웃 支署에서도 출근을위한 비상소집이 1시간이상 걸렸다면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이런 허술한 속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세상을 살아갈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어찌 따뜻한봄날에 생기게 되었나 생각해봅니다. 봄은 만물이 蘇生하고 새로운 삶을 여는 아름다운 계절인데 무수한 인명을 빼앗아가는 비극이 이 땅에서 생겼는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범죄사실은 가정의 불안정에서 생긴다는 어느 法官의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公職者를 採用하는 기준이 「忠臣은 出於孝子門」이라 하여 家門을 가장 중요시했고 修身、齊家後의 治國을 생각했고 「家和萬事成」이라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그사회의 평화의 尺度로 삼았던 때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잠재적 성격파탄자가 「민중의 지팡이」로 奉職했는가가 의문입니다.

이사건은 순전히 목적없는 狂亂에 불과합니다. 情緖感覺이 전혀 없는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있는 社會는 메마르기 짝이없고 항상 사고를 內包하고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公職者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란법은 없읍니다. 그러나 인격자에 준하는 스스로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흑하면 문화와 정신을 말합니다. 올바른 정신을가지고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 갈고닦은 인격을 사회에서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는 말뿐이지 꾸준히 자기 修練을쌓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내가 아는집안의 한청년은 지금 스물한살입니다. 그런대로 머리는 좋아서 명문대학에 다니고있읍니다. 그러나 그학생이 아침에는 11시가넘어서야 잠을깨고 밤에는 열두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다고합니다. 학교에 갈때는 노트 한권쯤 손에쥐고 가지만 그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하는지 도무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학생의 머리속에서는 算術的으로 「돈」만아는 생각뿐이라 부모에게용돈을달란다는 투정뿐이고 밤에는 술에취해 들어온다고 그어머니되는 사람이 여간 걱정이 아니었읍니다. 물론스물한살쯤이면 한두잔의 술을 마시게되는 기회도 있겠지만 장래의 큰뜻은없고 아무런 생각없이 술만마신다면 어떻게 될것인가는 뻔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들이 공부할때는 뚜렷한 목적을 設定하고 한시바삐 그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했고 실제 안간힘을 썼읍니다만 지금의 이학생은 그런 형편이 아닌 모양입니다. 더구나 부모들이 그학생의 장래에 관해서 타이르면 볼멘소리로 몇마디 대답할뿐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않는다는 말을듣고 나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읍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부모는 제자식이 귀여워 말을못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읍니까. 답답하기 이를데없을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학생은 지금 남다른 노력을 할수 있다면 사회에 나와 훌륭한 대접을 받을수 있고 또한 술도 적당히 마실수 있는 기회가 잠차 오지않겠읍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현실에 매달려 편케 지내겠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이 학생의 생각은 무서운 사회의 좀이 된다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큰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이런 생각들이 全人的인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가볍게 넘길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걱정은 태산같습니다.

情이 흐르는 訓育

한 경찰관의 銃器亂射로 수없는 생명이 죽어간 마당에서, 또한 地下鐵工事場에서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된다는 졸속한 생각때문에 인명을 앗아간 지하철공사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때 그 해답은 뚜렷해집니다.

날씨는 和暢하고 아름다운 꽃은 滿發한 5월입니다. 자연의 조건은 더없이 좋지만 봄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계절과 더불어 餘裕있는 느긋함을 人情과 情緖가 활짝 꽃을피우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精神文化院이란 기관이 우리 나라에는 있읍니다. 이는 곧 精神文化를 榮位로 생각하고 우리의 風情한 道路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기관이 아니겠읍니까. 정신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지나치지도 않고 미흡하지 않게 中道를 내세우는 「普通人」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또한 平凡한것 같지만 문화는 발전하며 평화는 維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特出한 몇몇 사람이 사회를 이끌고 국가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常識人, 제할 일을 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자가 많아야 평화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 배를 타고가는 많은 사람들이 航海中에 한쪽에 몰린다면 그 배는 엎어지고 맙니다. 교육도 문화도 인격도 公職者의 分別力도 바로 이를 요구합니다.

이런 事理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뜻한 봄날처럼 人情이 흐르는 가정이 요구되고 情緖觀念이 적절히 발달한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명히 判別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이를 조화해서 事理에 代入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평화를 維持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와 학교, 직장에서 내거는 口號보다는 情이 통하는 訓育이 중요하다는 까닭을 이해해야 될줄 압니다.

波여객기 空中拉致

폴란드人8명、西베를린에 도착

【西베를린30日AP=聯】 8명의 폴란드인들이 폴란드 로트항공사소속 국내선 여객기 1대를 공중납치, 서베를린의 템펠호프美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한 미군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부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서 바르샤바로 향하던 로트항공사소속 안토노프24여객기를 납치한 범인들이 베를린 장벽가까이에있는 템펠호프기지에 도착, 투항했다고 말했다.

바르샤바의 폴란드관리들은 이 여객기에 52명의 승객과 승무원5명이 탑승하고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여객기에는 6명의 보안요원들이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蘇정밀電子장비 아르헨에 流入

"확실한 證據 포착"

헤이그밝혀

【워싱턴30日UPI AP=聯】 미국의 정보당국은 對潛用무기등을 비롯한 소련제의 정예화된 전자장비들이 최근 쿠바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유입되었음을 입증시킬만한 「움직일수없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의회소식통들이 30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헤이그 국무장관이 29일 일단의 下院의원들과 비공개리에 만난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헤이그 장관은 이모임에서 쿠바정부가 아바나및 모스크바당국을 대신하여 아르헨티나측에 대해 여러종류의 다른 군사장비들을 自國을통해 공급해줄수있다는점을 통보했으며 아르헨티나도 그러한지원이 바람직한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쿠바의 한군수송기가 아르헨티나를 향해 비행하던중 기계고장을 일으켜 브라질의 한공항에 착륙했었던 일이있었으며 이항공기의 비상수리작업이 진행되는동안 브라질안보관리들과 미정보관리들이 기내의 화물을 점검했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한소식통은 이화물이 「고도로 정밀한 소련제 전자정찰·對潛·전자전파교란장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관리들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주재 소련대사를 불러 요담한 후 미국이 포클랜드사태와관련, 英國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헤이그장관의 발표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했다.

아르헨 헬機추락

11명사망…事故원인조사

【부에노스아이레스30日AP=聯】 아르헨티나군 헬리콥터 1대가 29일 남부 칼레타·올리비아부근에서 추락,타고 있던 승무원11명이 사망했다고 아르헨티나군 당국이 30일 발표했다.

코모도로·리바다비아 주둔중인 아르헨티나 제5군단은 이같은 추락사고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군당국이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사고헬기는 영국의 포클랜드(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해상및 공중 봉쇄조치가 발효된직후 산·호르헤灣에서 연습비행중 실종됐던것으로 알려졌었다.

中共副外相딸 被逮

【臺北=CNA】 中共부외상 何英의 딸이 소련을위한 간첩행위및 밀수혐의로 체포되었다고 臺灣의 정보보고들이 말했다.

이 보고는 何英의 딸 何春유가 타이에서 소련외교관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방콕주재 中共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적발된후 지난3월 체포되었다고말했다.

華國鋒입원 회복중

【北京30日AP=聯】 중공黨부주석 華國鋒이 그동안 입원치료를받고 현재 회복중이라고 新華社통신이 30일 보도했다.

新華社통신은 華가 언제 입원했는지는 밝히지않은채 이날 華가 병원에서 의사들과함께 국제노동일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갓난아기 密輸出

대만경찰은 최근 갓난애를 유럽이나 미국등지로 밀수출해온 비정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한 여인을 두목으로하는 이들 조직이 주로 버림받은 갓난애를 1천달러에 사들여 유럽이나 미국등지에 4천~5천달러에 파는 짓을 해왔다고 전하고 그동안 수십명의 대만아기들이 인신매매의 제물이 됐다고 첨언. 【臺北=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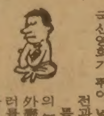
泰「不姙수술 작전」

泰國 보건당국은 한날 한 장소에서의 불임수술 세계신기록을 수립,기네스북에 올리기위해 메이데이인 1일 한 불임자원에서 1천명에게 무료불임수술을 해주는 「불임수술 작전」을 전개.

방콕의 사납뚜양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시간에 전개되는 이 「불임수술 작전」에는 20명의 노련한 의사들이 동원돼 상오8시부터 마라톤 불임수술을 실시하며 한날 한장소에서의 최다수 불임수술기록외에 1인당 수술시간 3분30초라는 최단시간 수술기록도 수립될듯. 【방콕=AP】

메아리

自制의 美學



혼돈속에서 질서를 낳는 원동력, 남녀를 맺어주고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키는 사랑의 힘— 희랍의 고대신화에 나오는 에로스는 이런 위대한 신이 었다.

이 에로스에서 줄기를 뻗은 에로티시즘은 현대에 와서 대중화되었다. 영화, 텔레비전, 활자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고있다. 에로티시즘은 美的 표현의 한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창작행위는 인간의 애정과 육체의신비를 훌륭한 소재로 삼는다. 스크린의 映像美로 승화되면 인간미의 황홀감에젖어 들게한다.

에로티시즘은 외설이나 포르노를 배격하며 또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섹스와 육체를 상품화시키면 그것은 외설로 전락하게 된다. 「美學의 自制」가 없는 묘사는 호기심을 건드릴뿐 수치와 불쾌를 남긴다.

입체적 표현인 영화는 예술·오락의 두얼굴을 지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관객을 맞아들일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때도 있을것이다.

우리 영화는 예술과 오락이라는 두얼굴이 조화를 못이루면서 표류하고 있는것 같다. 게다가 불황까지 겹쳐 들었다. 일부 국산영화가 「벗기기경쟁」에 나선것은 방향감각을 잃은 탓이라고 생각된다. 「관능의 유혹」이 불황타개의 돌파구는 될수 없다.

우리 영화가 일률적으로 답보·후퇴했다는 평점을 내리는것은 무리다. 돋보이게 뛰어난 작품이 상당히 제작되었다. 이 저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되겠다.

국산영화가 뛰어 넘어야 할 높은 壁은 텔레비전과 외국영화와의 경쟁이다.

특히 外畵와의 싸움에선 거의 無力상태다. 지난해 30편의 外畵를 들여오면서 5백20만달러를썼다. 반면 외국에 수출한 한국영화는16편, 그나마 모두 합해 20만5천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1편당 평균13배의 엄청난 逆調현상이다. 너무 비싸게 사들이고 아주 싸게 억지로 내다판 셈이다.

영화의 전달력은 강하다. 청소년들의 선도에도 큰 작용을 할수 있을것이다. 관능적「자극」이 아닌 인간탐구의 감동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래야만 국내뿐아니라 세계시장에 발을 내밀수 있다. 「승화된 美」를 국내 관객에게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

◇처칠 銅像도 관심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英國의 海·空봉쇄 30일 한 런던시민이 이를알리는 신문기사를 읽고있다. 뒤에 故윈스턴·처칠수상의 동상이 사태의추이를 지켜보는듯 묵묵히 서있다. 【런던30日UPI=聯】

海外토픽

隕石에서 아미노酸

★外界생명체 존재 뒷받침

濠洲에 떨어진 한운석에서 흰자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고 미국의 한연구팀이 30일 보고.

애리조나대학의 지구생물학자인 바톨리뷰·내기교수는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기고한 한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9월20일 濠洲동부 빅토리아에 떨어진 머치슨운석조각들로부터 생명체에 흔히나타나는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내기교수는 자신과 공동연구자인 카네기협회의 마이클·엥겔씨가 이같은 발견을 근거로 外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않는다고 말했으나 저명한 천체지질학자인 유진·슈메이커박사는 이같은 연구가 『운석에 의해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에 전달되었다』는 이론을 분명히 뒷받침하는것이라고 평가했다. 【피닉스(美애리조나州)=AP】

娼女에 金錢的도움

★EEC、生計수단바꾸면

歐共市(EEC)는 10개 회원국내의 창녀들이 생계수단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수도있다고 EEC의 한 고위관계자가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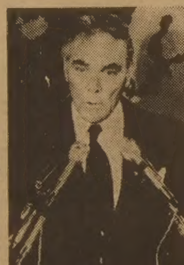
아이버·리처드EEC사회문제담당관은 최근 유럽의회의 한 의원으로부터의 이문제에 관한 서면질문을 받고 창녀들을 정상적인 근로생활로 끌어들이려는 공공 또는 민간계획이 일정한 조건을갖추는 경우 EEC사회기금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답변했다. 【브뤼셀=聯】

日농촌청년 新婦難

★결혼상담소 즐거운비명

일본처녀들의 농촌기피현상으로 신부감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홋까이도 농촌청년 25명이 도오꾜의 결혼상담소인 일본청년센터의 주선으로 도오꾜에서 단체맞선을 볼 예정이라고.

이들 남녀들은 단체회합을 가진후 마음에드는 상대를 적어내 쌍방이 맞아떨어질경우 짝을 지어나가고 나머지는 또다시 단체토론을 거쳐 상대방을 물색하게 된다는데 지난80년 설립된 일본청년센터는 이미 홋까이도 청년 9천명의 신청을 받아놓고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것. 【東京=共同】


◇헤이그、아르헨制裁 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30일 국무성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美國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軍事수출을 중단할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워싱턴30日AP聯=聯】

「청소년의달」談話

劉총리 발표

劉彰順국무총리는 1일「청소년의달」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일은 정부의노력이나 학교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무엇보다 가정을 비롯한 사회일반의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바른지도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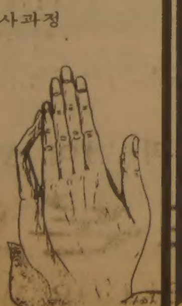
심령 부흥사경회

강사 : 고원용목사
시일 : 82년5월7, 8, 9일

저녁집회 : 금, 토, 주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 : 토, 주일 새벽6시
성경공부 : 토요일 오전11시
조찬기도회 : 토요일 7시30분
(선교 100주년 기념 토론토 연합전도대회 준비기도회)

(강사소개)
학력 : 숭대철학과, 장로신학대학, 미국 훌러신학선교학과 석사및박사과정
선교학과 석사및박사과정 이수
경력 : 한국에서 15년간 목회및부흥회 100여회 인도.
현재 미국 맬리 제1장로교회 담임
I. M. A. 국제총무

장소 : 토론토영락교회당
(김재광목사담임)
126 O'CONNOR DR. (at pape) Toronto
전 화 : 423—9880, 759—2006



공 고

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본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양로원(Nursing home)에 산재하여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을 한곳으로 모시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언어의 장벽, 환경의 이질감, 음식의 차이로 적절히 받으셔야할 대우도 못받고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한 양로원으로 모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던중 온타리오주정부 사회부와 보건부의 호의적인 협조에 힘입어 아래와 같이 1차적인 기초조사를 하고저 하오니 저희들 취지에 찬동하시고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하기주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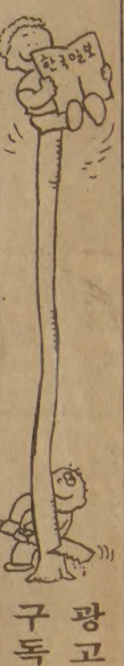
본인성명 : 생년월일 : 성 별 :
양로원명및 주소 :
입원일자 :
가족성명및 주소 :
전 화 :
연락주실곳 :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C/O J. H. CHUN 6042 PADDLE RD. MISS. ONT.
(416) 826—6664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천 중 환 • 이사장 김 명 규

과잉보호와…무관심과…「60回 어린이날」에 생각해본다

童心…어디로 가나

한국일보 특집판



광고문의 구독신청 533-2361

어린이가 없다

제자식 비싼음식·옷사줘도 전용극장·서점설치는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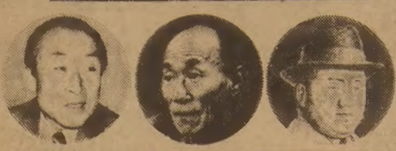
TV도 동화도 「우리것」 보다는 外來홍수

初期의 「어린이날」은 社會運動

색동회 8명이 "우리말풍습 찾자" 만들어

요즘부모 너무放任…團束과 調和이뤄야

尹克榮씨의 60돌회고



우리는 어깨동무

尹石重

동쪽나라 해가 뜨면 서쪽 나라 달이 뜨고
서쪽나라 해가 뜨면 동쪽나라 달이 뜨고
해와 달 사이좋게 번갈아 뜨네.
우리는 어깨 동무 정다운 친구。
우리는 너도 나도 세계 가족。
서쪽으로 자꾸 가도 동쪽 나라 나오고
동쪽으로 자꾸 가도 서쪽 나라 나오고
지구를 사이좋게 돌 수가 있네
우리는 어깨동무 대대로 친구
우리는 너도 나도 지구 가족。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초급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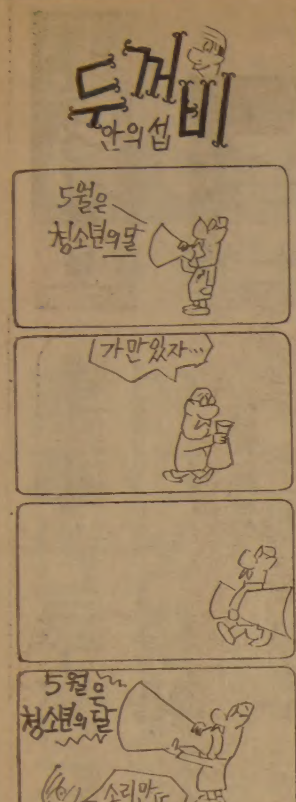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티잉) 구합니다.
108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프로판가스量 主婦들은 속고있다

容量적고 부탄가스 섞어팔아

한통2·8kg이나 모자라기도

消費者聯조사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주부들은 자신도모르게 않아서 손해를보고있다.

시판중인 대부분의 가스통이 규정보다 무거운것은물론 가스판매상들이 용량을 속이고 순도도떨어지는 부탄가스등을 섞어팔기때문이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조사 보고에의하면 20kg들이는 39개중 6%인 2개가 법정허용량인 4백g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으며 10kg들이의경우는 법정허용량 2백g을초과한것이 10%인 2개나되었다.

또 용기에표시된 무게보다 용기자체무게가 더나가는 것은 20kg들이의 경우 39개중 무려66·6%인 26개, 10kg들이의경우 35·2%인 6개나 되었다.

특히 가정에 배달되는 20kg들이 용기의경우 「Y가스」가 공급한 가스통에서는 9백20g이나 양이 부족한것이있었고 「D개스」가 공급한 10kg들이는 무려2·8kg이나 가스량이 모자란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이 입는 더큰 피해는 프로판가스에 부탄을섞어 순도를속여 파는 경우이다.

부탄은 겨울철에 제대로기화되어 밖으로 빠져나오지않고 통속에 남아있는데다 열량도 적어 프로판보다 kg당 가격이 6원23전이나 적은데도 업자들은 프로판 가격을 받고있다.

게다가 충전소가 충전을할때 용기를 세척하지않고 충전하기때문에 부탄성분은 그만큼 누적되고 소비자의 손해도 그만큼 가중되게 마련이다.

H정유의 한관계자는 가정에 배달되는 프로판가스의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순도가 90~92%정도밖에 없어 그나머지는 대부분 부탄성분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겨울철에는 8~10%만큼의 양이 용기에 남는상태가 돼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며 한번 사용한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재충전할경우 16~20%의 양이 용기속에 남는 결과가 된다.

동자부집계에 의하면 81년말 현재 프로판가스수용가는 53만가구나 되며 5인가족의 경우 한달 평균 13kg을 사용한다.

염산 세례받고 失明위기

전자제품 대리점주인 배달도중

고객가장 20代강도

三星전자 봉일천대리점 주인 文錫鳳씨(31·경기坡州郡條里面奉日天1里205)가 지난29일 하오8시께 경기高陽郡碧蹄邑官山3里앞 논길에서 자기소유인 경기7라4903호 픽업트럭에 컬러TV1대와 전기밥솥등을 싣고가다 고객으로 가장, 트럭에 같이탔던 20대청년으로부터 염산세례를받고 픽업트럭과 제품등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에 의하면 이날하오6시30분께 23~24세가량의 청년이 대리점을 찾아와 경기高陽郡碧蹄邑沙里峴1里에사는 「김광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뒤 「14인치 컬러TV1대와 전기밥솥을 사겠다」며 함께 沙里峴1里쪽으로 갔는데 차가 官山1里앞 논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길위에 지렁이가 지나간다」며 잠깐 차를 세우자고 요구, 文씨가 차를 세우자 함께 내렸다가 다시 차에 올라타는 순간 文씨얼굴에 푸른색 플래스틱통에 든 염산을 뿌렸다는것.

범인은 文씨가 얼굴에 화상을입고 놀라뛰어내리자 운전석으로 자리를옮겨 픽업트럭을몰고 官山1里쪽으로 달아났다는것.

염산세례를받은 文씨는 이날하오10시30분께 주민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옮겨져 치료를받았는데 왼쪽눈은 실명위기에 놓여있다.

한편 이날 컬러TV등 물품과함께 빼앗겼던 트럭은 30일하오5시께 사고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高陽郡元堂邑야산에서 버려진채 발견됐다.

안방에 도박장開場

노름돈까지 빌려줘

2백만원뜯어 拘束

【木浦】光州지검木浦지청은 1일 尹基卓씨(31·木浦市龍塘洞신용화아파트604호)를 도박개장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尹씨는 지난2월초부터 3월말까지 자기아파트 안방에 3~4명씩의 도박꾼을 불러들인뒤 이들에게 모두 4천여만원의 노름빚까지 빌려주면서 속칭 삼봉도박판을 벌여 모두 2백여만원을 개장비조로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최근 목포시내 가정집등에서 거액의 삼봉도박판이 성행하고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따라 수사끝에 윤씨를 검거한 것인데 김모씨(49·木浦市竹洞)등 도박을 한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聯合】

동생 장모一家 亂刺

상속재산 分配요구에 앙심

【釜山】釜山경찰서는 1일 상속재산분배때문에 동생의 장모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입힌 黃大寧씨(43·釜山市鹽浦洞146)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黃씨는 1일새벽3시30분께 친동생석봉씨(36·釜山市연산동803)집에 침입, 아랫방에서 잠자던 동생의장모 박분주씨(53)와 박씨의아들 이상범씨(26), 2녀 섬라양(22)을 차례로 어깨·가슴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후 달아났다가 3시간후인 상오6시30분께 검거됐다. 경찰에의하면 黃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2천4백90평과 대지1백53평을 동생이 달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한것은 동생의장모가 뒤에서조종한 것이라며 앙심을 품고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聯合】

부처님 오신날

다시 태어난 佛弟子

慧哲사미승 通度寺로 돌아왔다

심장판막 이식手術후 퇴원 通院치료도 끝나

◇수술 한달만에 通度寺로 돌아온 사미승 慧哲。저녁예불에참석, 종전처럼 정진하는 佛子의 생활을 다시시작했다。【李基龍기자찍음】

【梁山通度寺=金宗來기자】 불기2천5백26년 「부처님오신날」。 꼬마사미승慧哲(15)도 새로운 「생명」을갖고 通度寺로 돌아왔다。 꺼져가는 심장을갖고 通度寺를 나섰던 꼬마스님慧哲이 길떠난지 43일만에 힘차게 고동치는 새심장으로 돌아온것。 慧哲이 돌아온날 1백30여명의 절식구들은 절문밖까지 나와 그를환영했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慧哲의 귀사인사를받은 큰스님들은 『너는 이제 다시태어난 불제자』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慧哲은 지난달1일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고15일퇴원, 그동안 鍾路區嘉會洞의 通度寺중앙포교당 九龍山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주치의 李雄求박사로부터 『이제 내려가도 좋다』는 최종확인을받고 밤을 달려 30일새벽 서울서 4백10km인 通度寺에 도착했다。 기자와함께 야간열차로 오는동안에도 慧哲은 뜻밖의 감격을 맛보았다。 慧哲을 알아본 많은사람들이 그의 귀산을 축복해주었던것이다。

한40대남자는 『병원으로찾아가고 싶었으나 그러지못했는데 이제만나 마음이 후련하다』고했고또다른 아주머니는 성금을 떠맡기듯주고는 누구냐고 물을틈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通度寺로가는버스에서도 慧哲을알아보고 합장하며 반기는 여러신도들만났고 普光中 金英順교사(27·여) 徐海相교사(28)와 마주쳐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金교사등은 『정말 건강이 회복됐느냐』고 반기며 『慧哲을위한 모금운동이 이곳에선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전했다。

通度寺에 들어간 慧哲은 곧大雄殿에참배한데이어月下스님 碧眼스님 趙性坡주지등큰스님들을차례로찾아뵈었다。

주지 性坡스님은 『너의 귀산은 때마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더욱 뜻깊다』며 반겼고 은사 忍山스님도 꺼져가던 어린제자를살리기위해 동분서주하던 때를 회상하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忍山스님은 『너를 도와준 독지가 모두를 부처님으로여기고 이들의은혜가 헛되지않도록더욱정진에힘쓰라』고당부했고慧哲도 『사바 세계에서배운가르침을평생의교훈으로삼아 제2의 四溟大師가 되도록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慧哲의 귀산소식은 곧 절밖으로도 퍼져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격려와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성금을 맨처음 넜던 通度寺우체국교환양 金敏珠양(23)은 근무중에 달려와 『서울로갈때 그토록 기침을 많이하더니…』라며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慧哲은 이어 普光중학교에 가서 崔治鳳교장(62)、담임 朴成俊교사(28)등 교직원·급우들과 재회했다。 급우崔眞圭군(15)은 『마음의 지주를 잃은듯했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손을잡고 울먹였다。

이같은 신도·스님·학교측의 환영을 받은 慧哲은 이날 저녁예불에 참례, 원래의 생활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하오6시40분 장삼에 가사를 걸치고 선배학인들을 따라 梵魚樓 2층에있는 법고(法鼓)·운판(雲板)·목어(木魚)등을 두드려 예불시작을 알리고 이어 10분부터 大雄殿에서 예불을 보았다。

15분간 계속된 예불에서慧哲은 40여명의 선배스님·신도들과 함께 부처님 진골(全身)사리탑을향해 13번의 절을 거뜬히 해냈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般若心經을 엄숙히 염송하고나온 慧哲은 그동안의고난을 모두 초극한듯 큰스님같이 의젓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미래의 「四溟大師」가 태나는 거룩한 순간이었다。

한편 사미승慧哲은 通度寺로 歸寺하면서 한때 동문수학한 다른 스님의 생명까지 구해냈다。 성금2천2백11만2천5백원가운데 자신의 치료비 7백50만원과 앞으로의 통원치료비 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3백61만2천5백원을 [illegible] 5백61만2천5백원을 악성뇌종양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경북醴泉 龍門寺 사미승瑞眞스님(19)을 수술받게했으며 나머지 8백만원은 자신과 같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중생을위해 써달라고 한국일보社에 기탁키로했다。

길떠난지 43일만에

130여식구 山門까지나와 再會반겨

禮佛올리며 "四溟大師의 길" 다짐

七寶寺 어린이합창단

靑瓦臺찾아 祝歌불러

대한불교 曹溪宗산하 七寶寺(주지 姜昔珠) 어린이합창단 46명은 釋誕日을맞아 1일하오5시 청와대를방문, 비서실앞 정원에서 대통령의만수무강과 國泰民安을비는 축가와기원문을낭독했다。

「低音 장관」

「宜寧사건 뒷수습」…신임 盧泰愚內務

"國會의 나무람 반발할 생각없어"

육사11기。 개혁주체의 한사람。 예비역 4성장군。 무임소장관。 체육부장관。 자신 또한 육중한 체격의 만능 스포츠인… 「관록」과 화려한 「경력」의 인물이라는 선입관을 주면서 내무장관에 취임한 盧泰愚씨(50)를 만났을때 「의외였다。」

만군을 질타하는 우렁찬 장군의 목소리를 예상했으나 장관의 음성은 너무나 나지막했다。 취임소감을 말하는 그의 입을 바라보며 기자는 귀에 전신경을 모아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內容」은 소리없이 흐르는 大河같았다。 「低音長官」—。

宜寧사건 와중에 자리를 옮긴 그는 就任辭를 읽어내려가다 느닷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다같이 희생영령들의 명복을 빌자』고 제의한뒤 남쪽편으로 돌아서서 머리를숙였다。

이미 「음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자리에 더이상 없었다。 그것은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하나의 雄辯이었다。

그시각 「宜寧사건」 현장에선 갑자기 방만했던 경위조사가 선명해지고 복구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低音의 장관이 등장한 뉴스는 바로 「底力」의 시작이었을까。 그의 첫과제였던 宜寧사건의 뒷수습에서 그는 자신의 후광과 경력을의식케하는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고 화려하게 많은걸 약속하지도 않았다。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에 같이 동참하면서도 경찰을 위시한 행정의 허탈과 좌절을 극복시키기위해 착실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盧내무는 이런 군인다운 「성실성」으로 만만찮게 보였던 國會내무위 질의도 극복했다。 『저는 수경사사령관당시 극도의 혼란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각계지도자들에게 잘해달라고 호소했었읍니다』 『본인은 지금 내무장관일뿐이며 잘못이 있으면 국회에서 호되게 혼날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반발하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장관의 답변치고는 낯설고 서툴지만 이 마지막 신상발언은 장내를 조용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다。

盧장관은 군인시절 『어떤경우에도 부하들에게 화를 안내는 장군』 『일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일의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더 중요시하는 合理主義者』 『섬세한 사람』등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8만경찰의 총수로서의 진면목은 미지수다。 「底力장관」이 보일 조화가 주목된다。 【裵琪哲기자】

한국일보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발명, 발견·심포지움등 학계·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 (라) 공로상: 한글교육·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변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도나스 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새로 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드라이크리닝
주매상 $4,000(Cash &Carry) 아스킹 $179,000 주매상 $2,300 (Cash & Carry)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大邱·信一 끝내 무승부

3시간35분…12회 연장 1-1

無事만루에도 打線침묵 信一

연타석併殺打 不運겹쳐 大邱

대통령盃 高校야구

4強으로 향한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고교야구시즌 첫대회인 제16회 대통령배대회의 4강진출권을 가리는 信一高와 大邱高의 대전은 연장12회, 3시간35분간의 대결에도 승부를 가리지못해 2일12시 13회부터 연장 계속경기를 갖게 되었다. 2만여관중들의 성원속에 1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6일째 준준결승서 양팀은 여러차례의 찬스를 불운으로 놓쳐 1-1의 균형을 깨뜨리지 못했다.

마치 점수안내기 경쟁이라도 벌이는것 같았다. 초반엔 大邱가 연속된 불운으로, 종반에는 信一이 거듭된 홈공으로 결승점의 기회를 잃었다.

信一은 1회말 1死후2번 鄭美孝가 데드볼로나가2盜, 포수견제 악송구로 3루까지 진출, 3번 吉洪圭의 중전적시타로 가볍게 1점을선제했다.

大邱가 4회초 1-1의 동점을 만들때까지는 숱한고난이 뒤따랐다. 大邱는 1、2、3회초 모두 포볼과 안타로 진루했으나 후속 병살타、보내기번트 실패로 번번이 찬스를 잃었다.

2번 許榮秀는 1、3회말 연타석 병살타로 노발대발한 金秉濱감독에 의해 더아웃으로 쫓겨났다. 大邱는 4회초 선두 3번 李庸培가 포볼을 고른후 비로소 4번朴鍾哲이 보내기번트를 성공시켰고 땅볼과 6번 金哲民의 좌전 동점타로 1-1의 타이를 만들었다. 大邱는 5회초에도 주자를 1루에두고 교체기용된 2번 張泰洙가 좌전 2루타를 날렸으나 타구가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는 불운으로 득점에 실패했다.

잇단 고비를 넘긴 信一은 6회말 4번 張光一의2루타와 포볼、적실 1개로 1死만루의 찬스를맞았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으며 연장 10회말에는 선두1번 黃俊桐의 2루타、야수선택、포볼로 만든 無死만루의 결정적승기를 안타만을기다리는 소극전법으로 놓쳤다.

◇제6일 준준결승

대구고	000	100	000	00…	1
신일고	100	000	000	00…	1

〈12회 연장 일시정지〉

◇물거품되는 信一만루찬스 信一高와大邱高의 대전。6회말1死만루서 6번李鵬憲이 2루앞 땅볼을때리자 3루주자李洪圭가 홈으로뛰어들다 아웃되었다.

한국、泰國과 첫對戰

킹스컵축구、오늘밤 9시45분

제15회킹스컵국제축구대회(泰國방콕)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은 2일밤9시45분(이하한국시간) 泰國B팀과 조별리그 첫대전을벌인다.

한국대표팀 金正男코치에 의하면 한국은 5일밤9시45분 말레이지아와 8일밤 8시 인도네시아와 각각 대결한다.

이번 대회는 8개국 9개팀이 참가하여 A조에 泰國A 中共 싱가포르 필리핀 네팔등 5개팀이、B조에는한국등4개팀이각각편성됐다。

대회 방식은 조별리그후각조 상위3개팀이 9일부터15일까지 결선리그를벌이고A、B조 1위팀이 17일결승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비롯하여홈팀泰國A、대표선수가 상당수 끼어있는선발팀 中共이우승후보로지목되고있다。

지 않은데다 한국은 1·2차전을 승리로 끝냈기때문에 방심했을지 모르며 張允昌 柳熙卿등 몇명의 베스트가 컨디션이 좋지않은점등도 변명의 구실이 될수있다.

그러나 제2세트서 9-5 11-8로 앞서다가 막판에뒤집힌것등은 큰 문제였다.

제2세트 중반이후 에스떼반(190㎝)의 백·라이트공격에 한국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갈팡질팡 했다。신예 李鍾敬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으나 상대블로킹을 제대로 요리하지못했다。

합숙훈련한 기간이 짧았지만 A·B퀵플레이도 한템포씩 처졌다.

이날 한국대표팀의 역전패는 역설적이지만 심판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주심 安宗澤씨는 초반한국팀에게 유리하게 휘슬을불다가 아르헨티나로부터 몇차례 항의를 받은후 판단기준이흔들려 이후부터는 한국대표팀이 불리한판정을 감수해야했다。

◇제5일전적

▲남자부

아르헨티나 3 (15-7 15-7 17-15 5-15) 1 대한

▲여자부

한국 3 (15-12 15-10 15-13 13-15) 1 페루

"中거리슛·速攻 펼쳐라"

ABC농구豫選분석 宿命의 한판 對中共戰

【東京=李基洪특파원】제9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ABC)가 예선리그를 마치고 2일부터 6강의 결승리그를 벌인다。

뉴델리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전초전이자 88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10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아시아지역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패권을노릴 6強은 한국、말레이지아(이상 A조) 中共 마카오(이상 B조) 日本 싱가포르(이상 C조)로 압축되었다。

예선리그서 싸웠던 팀끼리는 또 만나지않는 라운드로빈 방식의 결승리그에 진출한 6강중에서 말레이지아、마카오、싱가포르등 각조2위팀은 실력이 훨씬 떨어져 한국、中共、日本의 3개국이 사실상 우승을다투게 된다。

한국은 3連覇를、中共은 한국에당한 4連覇의 치욕을 씻으면서 6년만의 패권탈환을、日本은 홈 코트의 잇점을살려 12년만의정상탈환을 노리고있다。

3強이 예선리그서 보여준 각종 기록은 막상막하。

得點·득실차·슛 最強勢 中共

(韓中日전력비교참고)득점이나 득실차 모두 中共이 앞서고 있다。中共세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위협적이며 蔚纖統단장은『우리의 과녁은 한국이다』고말하고있다。슛의 정확도에서도 中共 우세。야투에서 74·79%、자유투에서 97·33%를 마크하고 있다。

한국은 야투성공률에서 56·5%、자유투성공률 77·5%이며 日本은 야투가 56·5%、자유투가 70·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는 정확한 실력의 평가기준이 되지못한다。中共의 야투는 80%정도가 골밑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은 60%가 롱슛에 의존했다。

예선전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한 신경전、작전상의 후퇴가 없지 않았다。서로 전력을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연막도 피웠다。

한국의 경우 가드 方信實을 슈터인것처럼 위장했고 기동력이 모자라는 金英姬를 앞세운 3·2 지역방어를 펴기도했다。또 베스트5를 모르게 하기위해 12명을 정신없이 교체했다。中共또한 골게터로 알려진 蔭麗娟을 후반에잠깐 등장시키곤 했다。

한국은 중거리슛과속공、中共은 리바운드와 골밑슛이 주무기다。日本은 신장(평균1m73)과 기량에서 한국이나 中共에 뒤지고있다。그러나 슈퍼스타는 없지만 오오다니(大谷)를 축으로한 주전들의 득점력이 고른것이 강점이다。

日本으로선 한국이나 中共가운데 한팀을 꺾는다면 최대의 수확이란것이 日本매스컴의 자체진단이기도하다。

아시아여자농구의 패권을놓고 3일하오에열릴 한국과 中共의 숙명적대결。한국의 중거리슛과 속공이 中共의 골밑을 파괴할수있을지 주목된다。

◇대들보 朴贊淑 한국여자농구의 대들보 朴贊淑。3일 中共과의 경기서 위력을 보일까。예선리그 말레이지아와의 경기서 분전하는 모습。【東京=李東虎특파원】

리바운드가 主導權가름

申東坡감독의 말

協力수비·골밑봉쇄의 길뿐

陳月芳은 별로 主戰감 못돼

中共과 日本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다。특히 中共이 강해진것 같다。

中共과 6번째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리바운드다。리바운드서 열세를보인 다면 주도권을 빼앗길 공산이크다。

中共의 리바운드는 위력적이다。따라서 수비가 승부를 가름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것으로 본다。中共이 골밑에 볼을 투입할 기회를 봉쇄해야만 한다。우리는 키가 자기때문에 가운데를 좁힌 2·3지역방어를펴면서 볼의 진로에따라 협력수비로 맞서는수밖에 없다。朴贊淑(1m90)이 경험이 나가슬면에서中共의 주전센터 柳茵(1m88)을 압도할것으로 기대한다。中共의 최장신 陳月芳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주전으로 뛸만한 선수가 못되기때문에 신경을 쓰지않는다。中共의 베스트5중 새로들어선 4명은 80년 방콕주니어선수권대회 대표들로 한국의 金和順、朴良桂등에게 꼼짝 못했었고 中共의 쎈치(王利發、周懿嫻)는 출전해 이후 새로 들어섰다。

◇韓·中·日 전력비교

팀	평균신장	평균나이	평균득점	평균득실차	야투성공률	자유투성공률	강점	약점
한국	177·8	21·67	143·5	+102	56·5	77·5	중거리슛 속공	리바운드
중공	183·1	20·9	152·5	+126	74·79	97·33	리바운드 골밑슛	중거리슛
일본	173	22·17	137·5	+102·5	56·5	70·5	홈코트 팀웍	신장 개인기

流星의 賦 <37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㉘

신불로부터 대강의 경위에 관한 연락을 받자 홍계남이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내렸다。

『결행은 7월1일 밤으로 한다。화약의 수송지는 일단 양화도로 정한다。늦어도 밤 삼경(三更)까진 화약이 양화도에 도착해야 한다。지나친 욕심을 내선 안된다』

그리고 이어 계남은 광교산 본거지로 부터 양화도 사이의 팔십리 거리의 요소요소에 군사를 배치하고、그 사이 사이에 기동에 불편이 없는 노인들을 동원하여 바람을 쐬고 있는 척 하라고 일렀다。

계남으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은 신불은 그동안에 포섭해 놓았던 30~40명의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당신들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하지 않겠소。나는 어려운 일을 부탁하려는 것이 아니오。여게 왜놈들에게 붙어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놈들의 명단과 집주소가 있소。여러분은 그놈들 몇놈씩을 맡아 7월1일밤에 놈들의 집에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할 놈들에게 여러분이 대신벌을 내리는 것이오』

모두들 신불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신불은 불을 지르는 요령을 설명하고 나서 덧붙였다。

『왜놈들에게 붙어 먹는 놈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정말 뜻밖이었소。여러분이 내가 이른 요령으로 불을 질러만 준다면 한성 안팎은 불바다가 될것이오。그름에 우리는 기막힌 일을 할 참이오』

이래 놓고 신불은 7월1일 밤 삼개 나루터 근처에 빈 배를 열척쯤 대기시켜 놓으라고 지시하고 그 배에 사공으로 가장하여 부하들을 배치했다。

이곳 저곳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곤 신불이 주교동으로 달려갔다。주교동 근처에서도 이곳저곳 화염이 오르고 있었다。

화약고를 지키고 있던 왜병들이 어찌할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신불은 일본말을 할줄 아는 놈을 데리고 갔던 터라

『이 창고에 무엇이 있는진 모르지만 만일 중요한물건이거든 빨리 한강쪽으로 옮겨 빈 배라도 있으면 거게 실어 놓는 것이 좋을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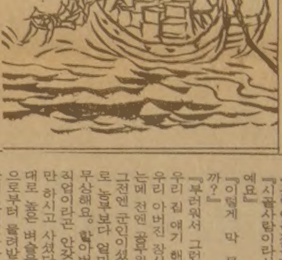
는 말을 왜병에게 하도록 했다。

그말을 듣자 왜병들은 일제히 창고문을 부수곤 화약을 반출하기 시작했는데 배에 실으려면 이리로 가지고 오라며 신불이 앞장을 섰다。

당황한 왜병들은 우선 화기로부터 화약을 멀리하려고 한강변까지 왔다가 거게 빈 배가 있는것을 보아라고 그배에 화약을 옮겨 실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 되었을때 신불은 배를 강 중간쯤에 갔다 놓는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했다。

왜병들은 수삼인씩 배에 분승하여 강중류로 나왔다。칠흑의 밤이라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틈을 타서 신불의 명령일하 배에 오른 왜병들을 혹은 죽이고 혹은 물에 차넣고 하곤 양화도로 저어갔다。양화도엔 이미 봉화가 올라 있었다。화약이 양화도에 도착하자 미리 동원되어 있던 사람들에 의해 체송식(遞送式)으로 운반되기 시작했다。짧은 여름 밤인데도 날이 새기 전에 수만발의 화약은 감쪽같이 광교산 본거에까지 운반되었다。



明暗 ㉟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오무라이스가 왔다。인재가 권태롭게 접시속의 노란 동산을 허물었다。

『아버지가 농부세요?』

오목이가 물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요。대대로。형님도요』

『부러워요』

『도시사람들은 한번씩 괜히그래보길좋아하더군요。그런 소리 듣고 좋아할 골수 촌놈 없다는 것쯤 아실만한 양반들이!』

『괜히 그러는거 아녜요。조상에 대해 확실하고 떳떳하고 정직하게 말할수있는 시골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마치 서울사람들은 다조상을 속여 먹는단 소리처럼 들리네요』

『일부러 속일래서 속이는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어물려 살려면 약점은 될수 있는대로 드러내지않는게 수거던요。이미있는약점을 환상으로 땜질할 밖에요』

『못알아듣겠는데요』

『시골사람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 무시하깁니까?』

『부러워서 그러다니까요。우리 집 얘기 해도 되죠? 우리 아버진 장사를 하시는데 전엔 공무원이셨고、그전엔 군인이셨어요。대대로 농부보다 얼마나 변화무상해요。할아버진 평생 직업이라곤 안갖고도 호강만 하시고 사셨다는데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때문에 그러실수가 있었다나봐요 지금도 우리집엔 옛날대갓집의 찌끄러기들이 많이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斜陽)길의 집안이로군요?』

인재는 오목의 갑작스러운 수다가 오무라이스 맛만큼이나 재미가 없어 마지못해 대꾸했다。빨리 회사로 돌아가고싶었다。하필 그동안에수지한테서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만같아 조마조마했다。

여복(女福)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군。그는 분수에 안맞는 여복에서 빨리 놓여나고싶었다。그러나 오목의 수단은 집요했다。

『아버지도 그걸 느끼고 계셨던가봐요。교육열이 대단하세요。아들들한테 뿐만아니라 딸들한테도요。아버지의 교육열 아니었으면 전 대학 같은거 안가고 말았을 거예요。공부도 보통밖에 못했고 학교운도 없는 편이거든요。중학교부터 일차로 된 적이 없으니까요。그런 변변치못한 딸한테 대학간판하나 얻어주려고 비싼 과외공부만 골라서 시키느라 돈도 많이 없애셨죠。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예요。고지식한 어른인데도 제 혼담이 있을 때마다 거짓말은 또 어찌나 잘 시키는지 민망해서 죽겠다니까요。당신이 제대할 때의 계급을 올려서말하지않나、지방관청의 과장을 지내다가 당신이 저지르지도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책임 지고 물러났는데도 국장까지 지내다 사임한 것처럼 속이질않나、지금 하시는 전파사도 동업이고 점포도 세낸건데도 마치 그 빌딩전체의 주인인데 가게터 하나쯤 자영하는 것처럼 구시질않나、다 저를 위해서 그러시거니 하면서도 낯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제가 맏딸이거든요。할머니도 계세요。유난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제 밑으론 남동생이 둘인데 남동생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저보다는 덜 귀염 받았지요。국민학교 육학년땐 할머니가 줄창 더운점심을 해서 학교로 날라다 주셨다면 말 다 했죠』

인재가 하품을 했다。

구독신청·배달사고 533-2361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하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응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헌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푸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종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춘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침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구 인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수 있는
21세~25세 사이의
가정을 내집같이 돌봐주실 용모단
정한 여자분 구함
전화 : 298-6117, 598-4143

일본식당 Kitchen Helper 구함(남자분)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 960-9035

Shoe Repair Store에서 일하실분 구함
263 Morningside Ave.
전화 : 281-2217 (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디자이너를 위한 손으로 짜는(Handknitter)
재봉일 하실분.(영어를 할수 있어야함)
전화 : 487-7779 Kathy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오후 6시~밤11시) Queen St, E.
전화 : 466-399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진 수명

일본음식점에서 부엌일 도우실분과
Handyman (Part time) 구함
195 Richmond St, W. 전화: 977-9519 Harry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유경험 여자 캐셔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Full Time Helper 구함
시간: 3:00 p.m-12:00 p.m 위치: Queen×Triller
전화 : 532-6143, 532-9638

Mac's Milk Store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주3일 : 금, 토, 일)
26시간 1 Week
전화 : 221-905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문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ornhill(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e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와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Bloor 와 Christie에 위치한 식당(Tavern) 급매
L . A . B . O 있음. 리스 : 15년.
좌석 : 100석 (Banquet Room : 200석)
자세한것은 Peter에게 문의 바람.
전화 : 656-0011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

1. 대지와 건물및 도너스숍
넓은 대지에 집이나 스토어 건축가능. 40만불 요구
다운페이 15만불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장비 갖춘 Mr. Donuts Franchise
위치 : Young St, North Thornhill
넓이 : 1500 Sq. Feet
영업시간 : 6 : 30 Open – (24 Hours)
좋은조건의 Lease, Call Mr. Pridham 833-3095
The Gormley Group Realestate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 +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Fast Take Out Food
중국음식도 메뉴에 넣을수 있음. 좋은조건의 리스
전화 : 633-298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사용차 급매
81년도 싸이•스카이라크 6기통•13,000Km
전화 : 249-6327 (Mr. Kim)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64-4431 (오후5시이후 연락 바람)

버거 팩토리 매매
위치 : 브닝 싸이드×세파드.. Call Jhon 또는 Art.
오후5시에서 9시 사이에 전화주세요. 전화 : 281-0288

아이스크림집 매매
전화 : 752-4766(Mr. Bang)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000이상. Rent & Lease 좋은조건
704 Wilson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 King St, E. (Bowman Ville, 오샤와 지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Becker 주렌사이즈 스토아 매매(스카브로지역)
꼭 관심 있으신분은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755-8852

Mac's Milk 급매
전화 : (B) 368-0686, (R) 292-2024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십시오.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쓴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남녀커트, 파마및 스타일 신순
631 Bloor St. W. (시유이 앵 사2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